

2025년 03월 13일(목)

15:0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요청

발신
윤석열탄핵촉구동물운동네트워크

문의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
/010-7920-7950

오는 **14일(금) 시국선언 발표 당일, 오후 13시 경북구역 4번출구 서십자각 농성장 앞**
현장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사후 보도자료 및 사진 자료를 당일인 **14일(금) 오후 14시경** 배포할 예정입니다.

[취재요청서]

동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탄핵촉구동물단체네트워크 시국선언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동물단체 시국 선언 발표
- 민주주의의 적이자, 온생명의 적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요구
- 파면 이후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공존이 가능한 문명과 체제의 전환 필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오는 3월 14일(금) 오후 13시, '윤석열탄핵촉구동물단체네트워크'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서십자각 농성장에서 진행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사법 체계를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고, 민주주의를 농락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정권은 온생명의 적이었습니다. 생명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권력이었고, 동물을 오로지 자원으로 소비하고, 산업과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학살하며 생태계 파괴를 정당화했습니다.

저희 동물 단체들은 윤석열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아닌, 동물의 이름으로 파면하고, 인간만의 민주주의를 넘어 생태적 연대와 공생을 향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극심한 기후·생태위기 속에서도 이어지는 동물에 대한 착취와 수탈의 고리를 끊고, 공생·공존의 세상으로 향하는 길은 윤석열 파면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비인간 동물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문명의 전환을 논하는 자리에 기자님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국선언문

윤석열탄핵촉구동물단체네트워크 시국선언문

동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아닌, 동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껏 해 온 일들은 명명백백하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사법 체계를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고, 민주주의를 농락했다. 이제 그는 첫 번째 심판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광장에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모였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모인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의 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온생명의 적이였다. 생명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권력이였다. 동물을 오로지 자원으로 소비하고, 산업과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학살하며, 생태계 파괴를 정당화했다. 공장식 축산을 확대하고, 살처분을 방치하며,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침탈하고, 환경 보전을 가로막았다. 기후·생태위기가 극심해지는 가운데도 탐욕을 위한 착취와 수탈을 멈추지 않았던 이 정권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알고 있다. 동물들에게 과연 계엄이 아닌 정권이 있었는가? 동물들에게는 윤석열 이전의 모든 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동물들에게 정치는 늘 오래된 계엄이였다. 인간 중심의 정치와 법은 그 역사만큼 동물을 억압해 왔고, 그것을 '정상'이라

불러왔다. 일상의 모든 공간에 동물은 존재하였으나 그 안에 생명으로서의 존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구시대를 단호히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명과 체제의 전환이다. 지구 생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적 연대와 공생이다. 윤석열 이후, 우리는 무엇을 다시 세울 것인가? 인간만을 위한 낡은 민주주의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 인간만의 민주주의를 넘어,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존중, 지구라는 행성에 거주하는 이웃, 공동체의 일원이 지켜야 할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포스트-윤석열 시대를 정의할 핵심 원칙이자, 지구에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머뭇거리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파면은 시대적 필연이며, 지금 이 순간이 헌법정신의 퇴행을 멈출 마지막 기회다. 우리는 법이 다시금 정의의 도구가 되고, 민주주의가 모든 생명과 공존하는 원칙이 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것은 인간만의 투쟁이 아니다. 인간동물이 비인간동물 동료들과 다시 한 번 동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오래된 계엄을 끝낸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오래된 미래로 간다. 이를 향한 우리의 행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일시 : 2025년 03월 14일 (금) 오후 13시
장소 : 경북공역 4번출구 서십자각 농성장 앞
주최 : 윤석열탄핵촉구동물단체네트워크
후원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진행 : 김도희(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

프로그램

- 여는 발언 이형주(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
- 발언 1 헤리(새벽이생추어리 활동가)
- 발언 2 지수(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장)
- 연대 발언 최영(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 발언 3 김영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시국선언문 낭독